



# 미국 흑인의 고용 현황

박윤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인적자원개발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미국에서 매년 2월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African American History Month)」 - 소위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로 지정되어 있다. 이 달은 미 흑인 선조의 업적을 기리고 미국 내 흑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수립된 후 200주년이 되던 해인 1976년에 제정되었다. 흑인 역사의 달은 카터 우드슨(Carter G. Woodson) 박사와 여러 흑인 학자들의 노력으로 1926년에 제정된 “흑인 역사의 주(Negro History Week)”에서 유래되었으며, 매년 2월 두 번째 주에 기념되고 있다. 미국의 2월 두 번째 주에는 노예제 폐지 운동에 힘썼던 흑인 지도자인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와 애브러함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의 생일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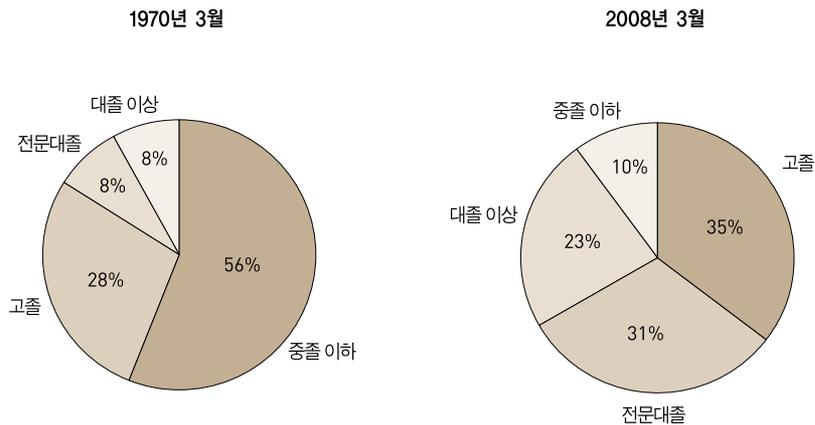
미국 내 흑인 인구는 전체 미국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흑인 지도자로는 콜린 파워(Collin Powell) 국무장관, 흑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된 루스 시몬스(Ruth J. Simmons),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이자 흑인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 등을 들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흑인의 고위 관료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흑인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흑인<sup>1)</sup>의 고용 현황에 관하여 교육수준 및 임금과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타 인종과의 비교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 흑인의 교육수준 및 임금 현황

흑인의 교육수준을 시대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1970년 당시 노동인구가운데 흑인의 절반 이상은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였으나, 2008년 3월 현재 25~64세에 해당되는 흑인 노동인구 중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되어 10%로 줄어들었다. 또한 교육수준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비율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즉 1970년대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 비율은 16%에 불과하였지만 38년 후인 2008년에는 무려 54%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2008년 현재 흑인의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흑인의 교육수준 (25-64세 노동인력의 1970년 및 2008년 현황 비교)



주: \* 1970년 3월 자료는 흑인 및 다른 인종을 포함한 미국의 25~64세 취업인구의 교육수준에 관한 자료임. 반면, 2008년 자료는 25~64세 흑인 취업인구에 관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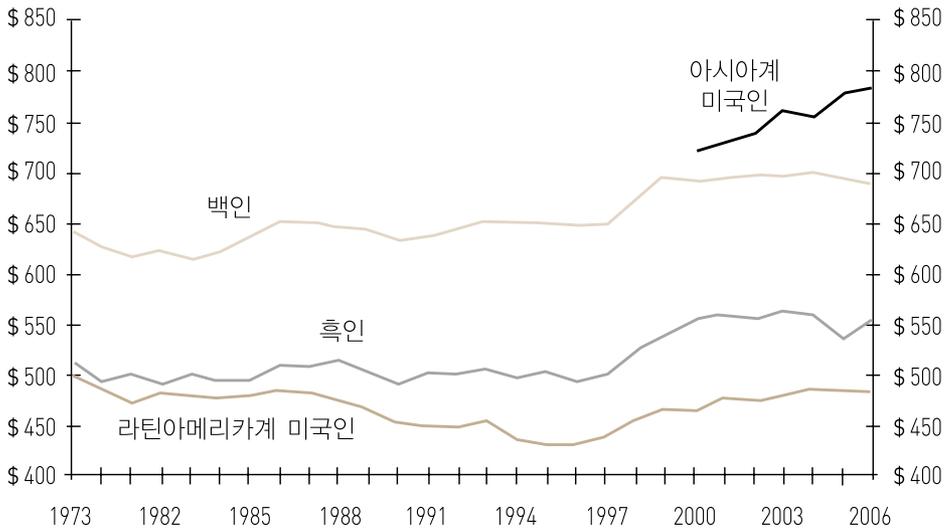
\*\* 반올림으로 인하여 자료의 퍼센티지 합계가 100이 안 될 수도 있음.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U.S. Department of Labor, *BLS Spotlight on Statistics African American History Month*, p.4에서 재인용.

1)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의 공식 명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 이지만, 백인의 상대적 용어로 통상 사용되고 있는 '흑인'으로 기재함을 밝혀 둔다.

[그림 2]는 2006년 현재 미국 내 인종별 임금수준(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임금의 중간값)을 제시한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임금은 주당 784달러로 여러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백인(690달러), 흑인(554달러), 히스패닉(486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일제 흑인 근로자의 주당 임금수준은 히스패닉에 비해서는 높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백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타 인종 대비 흑인의 임금 현황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Charting the U.S. Labor Market in 2006*, U.S. Department of Labor.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2008년 현재 25세 이상 전일제 흑인 근로자 주급의 중간값을 학력별로 제시하였다.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흑인의 주당 임금은 912달러인데 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흑인들의 주당 임금은 408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4년제 대학 학위 소지자가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이들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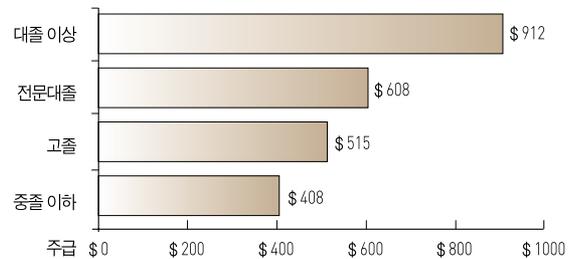
한편, 25세 이상 흑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실업률을 살펴보면, 위의 [그림 3]에서 교육수준이 높을

수준이 높아졌듯이 실업률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4 참조). 그리고 저학력 소지자일수록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현상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그 추이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25세 이상 대학 학력 소지자의 실업률은 4%에 불과한 반면, 고등학교 학력 미만의 실업률은 1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흑인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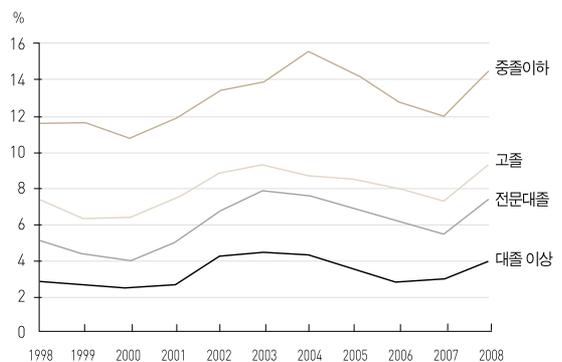
흑인의 고용 현황을 전체 미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인구 비율, 시간제 근로자 비율, 실업률, 장기 실업률, 경계 근로자 비율 등 폭넓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참조). 타 인종과 비교할 때, 흑인은 노동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흑인은 2006년 현재 전체 노동력 중 1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실업자 가운데 흑인 비율은 22%이고 장기 실업자(27주 이상 비고용 상태에 해당하는 자) 중 28%를 흑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일을 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아본 경계 근로자 중 흑인들의 비율은 25%로 나타나, 전체 인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흑인의 학력별 임금 현황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U.S. Department of Labor, *BLS Spotlight on Statistics African American History Month*, p.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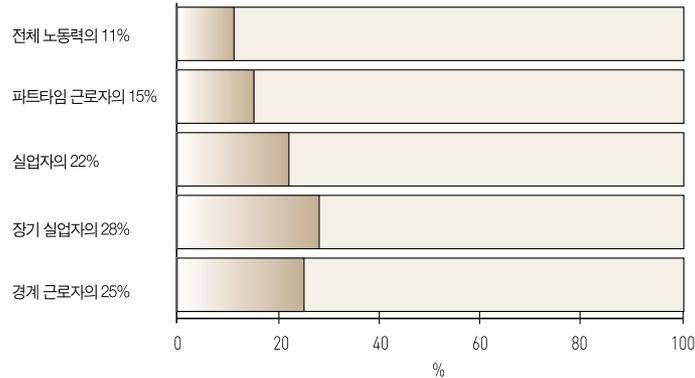
[그림 4] 25세 이상 흑인의 교육 수준별 실업률 (1998년~2008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U.S. Department of Labor, *BLS Spotlight on Statistics African American History Month*, p.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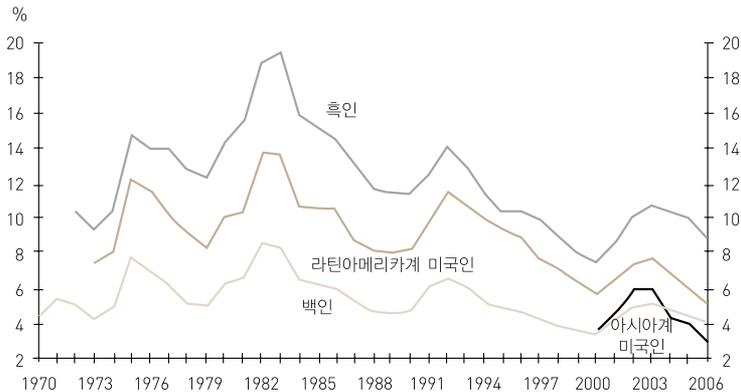
흑인의 고용 현황 가운데 실업률 측면에 초점을 두고 1970년부터 2006년까지 다른 인종과 비교해 볼 때, 흑인의 실업률은 타 인종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타 인종 대비 흑인의 고용 현황(2006년)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Charting the U.S. Labor Market in 2006*, U.S. Department of Labor.

[그림 6] 타 인종 대비 흑인의 실업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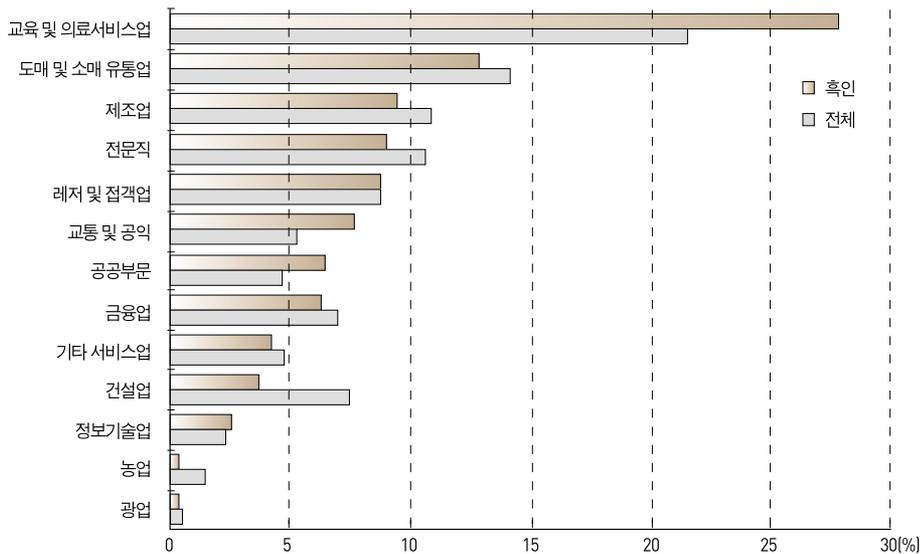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Charting the U.S. Labor Market in 2006*, U.S. Department of Labor.

[그림 6]에 보는 바와 같이 16세 이상의 흑인 실업률은 아시아계 미국인, 백인, 히스패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실업률보다 적어도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2008년 현재 16세 이상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 흑인의 취업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흑인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농업 및 관련 산업과 광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및 의료서비스 산업 다음으로 흑인들이 많이 취업한 분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레저 및 하스피털리티(Hospitality), 교통 및 공익사업 순으로 밝혀졌다.

[그림 7] 미국 전체 취업인구 중 흑인의 산업별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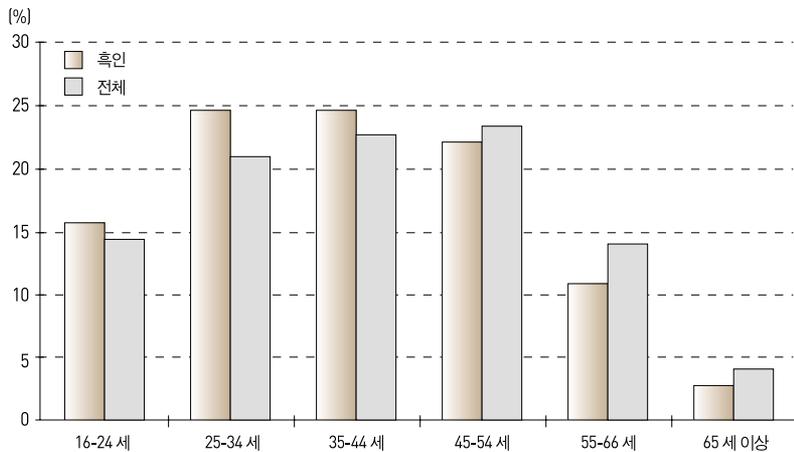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8),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U.S. Department of Labor, *BLS Spotlight on Statistics African American History Month*, p.3에서 재인용.

특히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흑인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취업인구 대비 흑인의 취업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2008년 현재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흑인의 숫자는 45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흑인 취업인구가 1,600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전체 흑인 취업인구의 네 명 중 한 명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흑인의 취업률이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높게 드러났듯이, 미국 내 전체 고용인력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 내 취업인구의 20% 이상이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8년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5명 중 1명 이상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현재 취업해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16세 이상 전체 미국인들 가운데 흑인 인구는 1,770만 명이며, 이 수치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은 미 전체 노동인구와 흑인 노동인구를 연령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44세 이하의 흑인 노동인구는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4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45세 미만의 연령대에 미 전체 노동시장 참여인구의 59%가 포함되는 반면, 흑인의 노동인구는 64% 정도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전체 노동인구와 비교할 때 흑인 인력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타 인종 대비 흑인의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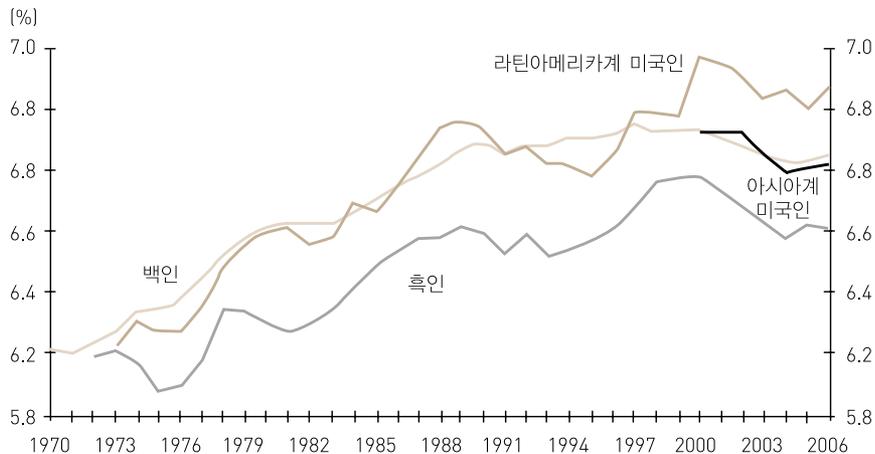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8),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U.S. Department of Labor, *BLS Spotlight on Statistics African American History Month*, p.2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2006년 현재 흑인 및 타 인종의 노동시장 참여율(전체 인구 중 취업을 하고 있거나 직업을 구하고 있는 16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히스패닉, 백인, 아시아계 미국인, 흑인 순으로 나타나 흑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타 인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

다 (그림 9 참조). 즉 흑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4.1%로 나타나 가장 참여가 높은 집단인 히스패닉계의 68.7%에 비하여 약 4.6%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각각 66.5%와 66.2%로 드러남에 따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 타 인종 대비 흑인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7), *Charting the U.S. Labor Market in 2006*, U.S. Department of Labor.

##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하여 흑인 노동인구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타 인종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 중 흑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실업률은 높고 임금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흑인들은 노동시장 참여에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흑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흑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흑인 노동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2)</sup> 실제로 미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노동인구 중 흑인의 수는 2000년에 1,700만 명에서 2050년에

는 2,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앞으로 흑인 인력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성에 관계없이 임금의 균등 지급을 강조하는 임금평등법에 서명함으로써<sup>3)</sup> 지금까지 흑인 여성 근로자의 교육 정도와 노동의 양에 비하여 낮게 지급받아 왔던 임금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흑인 여성들의 노동인구 증가와 함께 이들의 임금 증가는 전체 흑인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KLI**

2)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Labor force characteristics by race and ethnicity, 2007, U.S. Department of Labor.

3) Obama signs pay equity law, Washington Post, January 19, 2009.